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아암백혈병 환우를 위한 치료비가 지원이 있따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7월 14일 조선대학교병원 김만우 병원장실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했다.

치료비는 투병중인 이명준 어린이와 김명관 씨 등 5명에게 각 100만원의 치료비 지원과 헌혈증서 1000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현지 스님, 김은희 후원회장, 김만우 병원장 등 환우와 가족, 병원 관계들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지난 6월 회갑잔치 비용을 생명나눔에 기부한 김은희 후원회장의 후원금 1000만원 중 500만원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광주생명나눔 홍보대사 주권기는 7월 10일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생명나눔실천 음악회를 열어 아름다운 기부에 나섰다.

지난 10여 년간 광주생명나눔 후원금 마련을 위해 거리 모금을 진행한 주권기는 치료비 전달식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해 소아암백혈병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금전문가 초청 강연 광주 육화포럼

광주 빛고을 청년불자들의 모임 육화포럼(회장 김영삼)은 7월 8일 자비신행회 강의실에서 모금 전문가를 초청해, 모금 관련 강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는 모금 전문가 이명희 씨는 '모금으로 날개 달기'라는 주제로 모금의 개요와 기획, 모금관리, 모금의 원칙과 방법, 모금 조직구리와 후원회원 관리를 비롯한 캠페인과 이벤트, 온라인 활용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행사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결혼 이주여성 세가족을 선발해 친정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권과 체류비를 지원했다. 보혜 스님(가운데)은 7월 12일 복지관에서 이주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직접전달했다.

왕복 항공권 전달식에서 보혜 스님은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뜻 깊고 즐겁게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라이헝(여, 23)씨는 비행기 티켓과 체류비를 전달받으며 “너무 행복하다. 벌써 고향에 가 부모님을 만난 것 같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준 보혜 스님과 단체 관계자에게 감사

하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주성 센터장은 “이번에 친정방문을 하는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3~4년차 주부이다. 어려운 한국문화에 적응하며,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들을 보면, 도리어 60년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여건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향수병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행사는 본지 후원으로 지난 3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과 불교방송 정목 스님을 초청해 진행된 다문화이카데미의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의 향기 있는 연꽃문화제



2010전주연꽃문화제가 7월 10~11일 전주덕진공원에서 개최됐다. 연꽃문화제 문화행사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이 펼쳐졌다.

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2010 전주연꽃 문화제’가 7월 10~11일 금산사 전주 덕진 공원에서 개최됐다.

연꽃이 만발한 덕진 공원은 아름다운 천연 무대가 돼 빛을 발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송광사 도영 스님, 금산사 원행 스님, 김완주 전북지사, 불자, 시민 등 5천여 사부대

중은 축제의마당에서 시원한 웃음꽃을 피웠다.

그 외에도 연꽃문화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천년 전주의 향기 속으로’를 주제로 청소년 어울 한 마당, 가요제 예선 및 본선마당, 콘서트 무대공연마당, 문화체험마당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원화는 지역 발전 역행하는 것

익산사암, 매장문화재 보관·관리 일원화 반대

익산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익산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우성, 백운사 주지)는 7월 12일 문화재청등 관계기관에 문화재청이 입법예고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매장문화재는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역에 보관·관리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문화재 중앙집중화를 통해 가져 올 지역의 정체성 상실과 문화적, 정신

적 박탈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화유산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고,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빼앗을 수 있다”며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암 연합회는 “지난해 발견된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국립박물관에 보관하려고 염두에 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익산 사암연합회 우성 스님은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는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 고

현재에 한국불교조계종 종단을 혼탁스럽게 하는 중도들이 있기에 본 종단 상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현재 (부산지 서구 남부 민동 225번지 한 영수(자화)스님이 (사)한국불교단체 총 연합회에 종단을 가입하여 마치 본인이 한국불교 정통이라고 하며 종단 명칭을 가칭으로 등록하고 문화관광부 제141호이라고 하여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141호는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등록번호인데 어떻게 해서 정통을 주장하며 또한 자화스님은 천수사(월정스님)종정으로 총무원장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화스님은 한국불교조계종 명칭과 가칭으로 종단협의회 가입한 날자는 2009년 8월 15일로 등록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와 그 당시 일용스님의 총무원장 임기와 총무원장 일용스님이 사직서를 낸 당시는 2010년 2월 1일 날자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또한 자화스님은 그 당시 원로위원으로써 종단에 있으면서 활동하였고 본인은 총무원에 2010년 3월 15일에 원로위원 사표 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단협의회에 등록하여 명칭을 가칭 사용하여 현대불교신문에 마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이라고 광고하여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전례도 없는 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번호 등록은 2010년 4월 15일이면 공간이 맞지 아니하며 자화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현판을 걸고 한국불교조계종 승려로써 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조치중이며 형사처벌과 동시에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엄한 처벌을 할 것이며, 이외 가담한 스님은 필히 엄히 법적 및 상벌위원회에서 처벌을 할것이며, 각 중도스님께서도 이에 가담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4년 7월 15일

한국불교조계종 원로위원회, 총회위원회, 상벌위원회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300번지 / 총무원 (054)572-1034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움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며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온 몸과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힘을 광대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림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움 지어다.

산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 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하니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다인

차문화로 고품격

광주지역 불교행사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다인(茶人)들을 만난다. 최근 이들의 두드러진 활동으로 불자들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환자와 가족들이 전통차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여러 광주불교 다인회(茶人會)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특히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혜자) 다인들의 모임인 ‘차예가’ 활동이 눈에 띈다. (茶禮家 원장·이혜자) 차예가는 한국문화협회 호남지부장인 이혜자 선생의 제자들이 차문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광주지역 차문화에정사범들의 모임이다.

“차문화의 종가인 광주 호남에서 차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아 늘 안타까웠어요. 차는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문화예요. 차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대중화해 전 국민에게 ‘다반사(茶飯事)’가 되도록 정진하고 있습니다.”

원장 이혜자 선생은 누차 강조했다.

차예가는 사범과 준사범 2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꽃차 문화아카데미를 통해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차문화 보급을 위한 ‘찾아가는 차예가 찾자리’, 차인 양성을 위한 차문화 전문기획강좌, 차문화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학교병원 현관에서 매주 진행되는 ‘찾아가는 차예가 찾자리’ 봉사에는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병원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불교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차를 체험할 수 있는 찾자리를 펼쳐 불교행사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9년째 맞은 한꽃차문화



자비신행회 다인 ‘차예가’ 이혜자

불국토를 찾아서

다인 모임 차예가 원장 이해자

고품격 문화 선도한다

가 있는 곳 다인(茶人) 이들의 두드러진 활동이 원장·이혜자 선생의 제리 보급하기 광주지역 아카데미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차문화의 대중화 사업이다. “차를 통한 봉사활동과 전통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를 고품격 인격사회로 만드는 것”이 대중화의 이유라는 이해자 선생과 사범들은 차문화의 대중화에 사명감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대중화를 위한 첫 사업으로 8월 31일부터 ‘행복한 임신부 태교 차 문화교실’을 시작한다. 문화교실은 산부인과 의사, 차인, 명상음악가, 스님 등이 강사로

구성됐다. 웰빙 음료를 대표하는 차로 임신부와 아기들의 마음의 안정과 몸의 건강을 체험하는 강좌를 준비했다. 차예가는 앞으로 탄탄한 기반 닦기에 나선다. 향후 차문화 전수관을 겸한 센터 건립으로 상설교육관을 세우



비신행회 다인들의 모임인 차예가' 이해자 원장.

게 '다반사 정진하고 있는 누차 강사'는 23명이다. 이들에게 차예가 위한 차문화 예절 원 현관에 찾아가는 차는 병원을 계자들로부다. 또 불교는 다양한 찾자리를 단계 도약고 있다. 한꽃차문화

는 일이 그 중 하나다. 교육관에는 차의 역사를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수관을 비롯해, 차문화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될 예정이다. 광주는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여기에 답아야 할 많은 문화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차문화는 단연 으뜸 문화콘텐츠다. 빛고을 광주를 차문화 나눔의 명가로 만들려는 차예가의 활동이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작은 시작이다. ‘차문화를 새롭게 꽃피우고 차문화 예절교육을 통해 인격을 바르게 표현하고, 사람사이의 아름다움의 빛이 발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고품격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는 단체의 설립목적이 광주에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음보살님의 메시지

로 치유한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을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인 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

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마서다.

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 만들어야 할 지어다.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김건희 78 (오전 9시~오후 8시)